

社說

사격장 소음 수업권 침해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영평 사격장 부근 소음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포천시가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 특별위원회 의뢰를 받아 지난 4월4일부터 11일까지 영평사격장 인근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인근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공사장 발파 소리보다 높은 103dB(데시벨)이 나왔다. 이같은 수치는 학생들이 수업에 커녕 일반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 소음도는 평균 51.5데이다. 이곳 영평사격장에서는 자주포 사격이나 헬기사격 등이 이루어지는 미군사격장이다. 미군 사격장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라는 말이 있다.

게다가 보장초등학교는 포사격을 하는 장소와 포탄이 떨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포탄이 보장초등학교 상공을 지나 영평사격장에 떨어진다. 물론 헬기 사격이 이전 때 초등학교 상공에 머물다가 사격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나고 있다. 영평사격장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병욱 포천시의회 군부대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20일 정도는 미군 사격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달에 20일을 사격한다면 학생들의 수업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보장초등학교 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영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들 초등학교에서 교육부나 국방부에 건의한 내

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장은 운동장 수업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실내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격을 할 때는 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유리창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영평사격장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병욱 시의원의 말이다. 이병욱 시의원에 따르면 자주포 사격은 물론 탱크이동, 헬기사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신형무기들은 소음이 훨씬 크다고 한다.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람이 포탄에 맞아 죽거나 고막이 터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는 무척 힘들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가족내, 건물 균열 등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물리적인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 정부당국은 사격장과 훈련장 주변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새해설계 ⑨ 포천시의회 의원 김성남

150인 이하 학교 무료급식 조례 제정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의원들간 協議 가능

"지난해 100인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니 올해부터는 150인 이하 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과리며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포천시의회 김성남(사진) 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다"며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보좌관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민운동 출신으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은 포천시 농정행정은 전국 최우수 수준이라며 중앙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포천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농업분야를 희생시키는 한미FTA협상을 벌이면서 정작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포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올해부터는 150명이하의 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다 더 확대하여 고등학교생까지 무료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천에서 생산하는 쌀과 축산물, 농산물 등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6개 읍면의 지역구에서 개최

하는 행사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며 행사참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시민대표로 나가 의정활동을 하기도 부족한데 정작 시민들은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의원인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속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의원끼리 협의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의원들간의 상호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포천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한다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포천신문이 포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면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다시 오래된 화두, 나눔과 상생 위해

5월 11일 오후 4시, 류왕현 왕곰탕 잔치마당 마련



"문턱 없는 마음, 문턱 없는 곰탕집 류왕현 곰탕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쪽에선 세상을 망치는 것도 인간이고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이 희망이라는 모순의 시대에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라는 사실처럼 함께 나누는 상생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뵈겠습니다."

한때 포천사회 건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하다 실패한 류왕현(사진)씨가 포천시 소음습사무소앞에 '류왕현 왕곰탕'을 오픈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마련한다.

부민덕국(부유한 백성이 사는 덕 있는 국가)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히는 류왕현 왕곰탕의 류 대표는 "부자는 반드시 덕을 갖춰야 진짜 부자라는 사

실을 축문을 통해 온세상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11일 일요일 오후4시에 개최하는 행사는 김 놀이와 고천제 및 숯대모심, 오색실 자르기기에 이어 마당극 '소리 한자락, 술 한잔에 어

께가 절로 들쭉 공연이 예술공장 두레에 의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선착순 1천500명에게는 포장 류왕현 왕곰탕 1천500인분을 선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이날 식사는 무료가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류 대표의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그마한 잔치마당을 마련했으니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더욱 큰 기쁨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인사

- ▶주민생활지원국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정혜선 → 자치행정과 근무
- ▶반월아트홀 지방행정서기 송민수 → 주민생활지원국 민원과 근무
- ▶서울체신청 동작우체국 행정서기 홍현수 → 포천시 지방공무원 전입 가산면 근무
- ▶서울체신청 용인수지구체국 행정서기 김경희 → 포천시 지방공무원 전입 창수면 근무
- ▶전북체신청 사업지원국 행정서기 박영진 → 포천시 지방공무원 전입 공보관광담당관실 근무
- ▶전북체신청 전주우체국 행정서기 박상규 → 포천시 지방공무원 전입 반월아트홀 근무 (이상 4월30일자)

양호식 한나라당 예비후보 출마선언

한나라당 공천관련 당직자 접촉 언급 피해

양호식 법무사는 2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 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 동아대 김광우 교수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 7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호식 예비후보는 "포천사회의 미래지향적 화두는 각 영역의 선진화"라면서 "포천의 특성자원을 더 자인하여 포천이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물러 쉬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예비후보는 "6.4포천시장 보궐선거 최대 이슈는 지난 4월9일 실시된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김영우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포천시장을 뽑는 것"이라면서 "새로 선출될 포천시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낼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김영우



양호식 법무사는 2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 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이나 중앙당 관계자와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천을 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다. 한나라당 공천을 확실한다"고 말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군내면이장단, 속초시 선진지 견학

포천시 군내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창효)는 4월29일 이장단 기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지난해 명진 추진을 위해 노력한 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8년도 명진 추진 및 당면현안사항 협의와 함께 속초시 대순진리회 고성수련원, 동명향 일대 견학을 통한 친목도모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황성 한우마을을 방문해 지역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는 사례를 체험하고 우리 마을, 우리시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행사기간 중에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뒤돌아보고 군내면 이장협의회가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토의도 이뤄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장원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선언

29일 자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혀

29일 서장원 예비후보는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무소속으로 포천시 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장원 예비후보와 친분이 있는 지인 10여명이 동참했다.

서장원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을 아껴주고 지지했던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의한 것"이라면서 "포천시가 그동안 보여 온 정치적 갈등을 포용할 수 있는 후보는 여당 소속도 아니고 야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공천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정서가 사분오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천발전에 지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포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장원 예비후보는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무소속으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포천시당원협의회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서장원 예비후보는 "장명재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말았는데 그럴 까닭이 없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두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22일 ~ 4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최근발행현황**

2008. 4. 21 포천신문 제410호 발행  
2008. 4. 30 포천신문 제411호 발행  
2008. 5. 10 포천신문 제412호 발행예정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